

“ 우리에게 그날이 올까? ”

■ 이종윤 원로목사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날.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임할까? 거짓이 없는 정직하고, 법과 질서를 지키며, 서로 나누고, 자신은 절제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새로운 한국을 건설할 수 있을까? 복음화된 한반도 통일조국의 날이 우리에게 올 수 있을까? 한국장로교회가 하나가 되는 한교단단체제를 이루고 하나된 교회로 태어날 날이 주어질까? 희망이 없는 중에도 희망을 갖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많이 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엘리야, 이사야, 세레 요한, 바울,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이천년 역사 속에 무수한 신앙 선배들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승리했다.

우리말의 희망은 내가 기대하는 것, 바라는 것이지만, 소망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는 것이다. 소망은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것이다. 신생아가 태어나고 조간신문을 읽고 편지통에 온 편지를 기다리는 것은 무슨 신선한 소식을 기대하고 있다는 증거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막연한 기대나 새 소식을 바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비전을 바라고 믿은 소망을 가진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내가 저를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말씀을 세우기 위해 그는 소망을 가졌다. 그러므로 무엇을 희망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 희망의 목적이 무엇이나가 중요한 것이다. 젊은이에게 장차 어떤 사람이 되기를 희망하느냐는 질문보다 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를 물어야 한다. 명분과 욕심과 허세를 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려고 부르심에 합당한 직업을 선택한 사람이 소망의 사람이다. 아브라함은 백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시지프스의 신화에서처럼 굴러 떨어질 것을 알면서도 산꼭대기에 바윗돌을 올리려는 무의미한 반복 행위는 무시간이며 역사 없는 삶이다. 그러나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람은 힘들고 괴로워도 포기할 수 없고 뒤로 물러설 수 없다. 대학 입시철에 원서 들고 이 대학 저 학과 눈치보며 대학 입학하는 사람 무엇에 쓸까? 하나님 뜻 이루기 위해 받은 비전 따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아브라함처럼 과감하게 끝까지 도전해야 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죽은 자를 살리며 그가 약속하신 것은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함에 소망의 근거를 든듯히 세웠다. 모든 희망은 미래적이므로 불확실하고 애매모호하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과거에 소망을 걸고 있어 확실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사건을 믿고 거기에 소망의 줄을 건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바 된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즉 초자연적인 것을 바라고 믿는 믿음을 지키게 된다. 소망은 주어지는 것이지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소망도 행동하는 믿음도 주신다. 믿음 없이는 소망도 없고 소망 없는 믿음은 쉽게 무너지고 흔들린다. 믿음이 견고해져서 소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므로 성도의 낙심은 하나님을 슬프게 한다.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는 소망으로 완성된다. 소망이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 상태인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 얻고 소망 안에서 사는 것이 신자다. 소망은 기쁨도 가져온다. 소망은 영원한 것이므로 훈장과 칭호와 업적 같은 일시적인 것에 구속되지 않고 절대적인 것이므로 상대적 가치들로 인해 불안, 초조하지 않고 주님을 사모하고 소망함으로 시간 세계에서도 참 즐거움을 체험한다.

소망의 원리, 근거, 목표를 교회로부터 항상 받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9번 정치 현장에서 낙선하고 10번째 미국 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아브라함 링컨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때까지 인내할 수 있었다. 요셉, 모세, 다윗, 느헤미야, 바울도 모두 인내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인내는 사랑의 뿌리요, 믿음의 임시구며, 소망의 열매다. 순종과 희생을 요구하는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천국소망을 품고 가정복음화, 민족복음화, 교회천국화, 문화기독교화 그리고 특히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통한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받아 내 꿈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망을 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한국장로신문 2015년 5월 30일 발췌-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결실의 계절 가을과 추석 명절을 맞아 하나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직도 조상 제사 풍습과 우상숭배가 만연한 현실 속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우리의 마음을 다한 예배가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긴급하고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 성도님들을 뵙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번 주간에 시작되는 성경대학과 열린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 각자 신앙의 성숙을 추구하고, 이웃과 함께 하는 사랑의 바자를 통하여 최근 수해 등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도울 준비는 물론 우리 성도들 사이의 만남과 섬김의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일 1,2,3부 및 찬양예배 시간에 제공되는 실시간 온라인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시간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이전과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o8YwmR9UYpoXJrA>

주일예배 순서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 예배 순서 및 영상예배 지침
http://www.seoulchurch.or.kr/upload/20220911_sermon.jpg

서울교회 당회 드림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QR코드 
--------------------------------	---	---

부 목 사 장석남 조원영 안용근 조동수 김익환
전도사 박미라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이대원 **교육전도사** 허은 정기성 김예지 **협동목사** 심우진 전재홍 양정호
선 교 사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해경,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범연·김희정, 우상식·김정욱(인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황경주(말리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오정녀(케냐), 김종일·백순미(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삭, 비스타파, 사지, 에녹(인도), 스프로토바로이, 필리몬, 프로산도, 수레시, 수바쓰, 알로롱, 비시누뿌도, 보디소프, 린롬, 수란존(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왕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 종 윤 Lee Jong-Yun, Ph. D., D.D., D. D.	담임목사 Senior Pastor 손 달 익 Rev. Son , Dal-ig 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06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7, Samseong-ro 51-gil, Gangnam-gu, Seoul Korea

“ 한 전도자의 승리 ”

■ 사도행전 6:8-15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온 천하에 증거 되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때문에 언제나 교회는 성도들을 가르치고 훈련하여 세상 속으로 보내는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그 일이 너무나 위험하여 ‘양들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과 같다’(마 10:16)고 하셨지만 그럼에도 교회는 복음 전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첫 교회로부터 이어온 교회의 변함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도자를 양성하고 파송하는 영적 중요장과 같습니다. ‘예루살렘교회’라는 중요장에서 훈련된 전도자 중의 한 사람이 본문의 스테반 집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로부터 유대인 사회로 뛰어난 그가 보여주는 전도 역사입니다.

1. 담대한 도전
 본문에서 스테반 집사는 회당에서 사람들과 논쟁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이른바 자유민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해외에서 귀국한 유대인들인데 그들을 자유민이라고 불렀습니다. AD67년 로마의 폼페이우스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유대인들을 사로잡아 지중해변의 여러 도시로 이주시켜 노예가 되게 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민족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본격적인 통치를 위해 제거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시간이 지나 자유민의 신분을 얻어 귀국하여 예루살렘에서 그들만의 공동체를 만들고 회당을 중심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보수적 민족주의자들이었고 교회운동에 대하여 극렬한 반대 입장을 가진 집단이었습니다. 스테반이 그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한 것은 강력한 도전이었고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긴 신앙의 영적 결단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혼자서 노력으로 그들을 이기게 되는데 이를 10절 말씀에서는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고 했습니다.

2. 격렬한 반대
 회당의 사람들은 스테반에 대해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거짓 증인을 매수하여 위증하게 하고 스테반을 잡아 공회로 끌어가 고발했습니다. 그들은 스테반의 설교를 듣고는 ‘마음이 찢려 이를 갈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이토록 격렬하게 저항하고 반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들의 이상과 제자들의 선교내용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보수적 민족주의자들로서의 그들은 ‘유대인 중심의 세계 재편’이라는 이상사회 건설을 목표로 생각하고 이에 어긋나는 모든 것들을 정죄하며 배척했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죄사함의 길을 제시하고 이방인들도 함께 구원 받는 만민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메시지를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폭력도 행사했습니다. 극단주의자들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일제 강점기에 많은 민족주의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고, 그들은 민족주의를 절대화하며 다른 사람들과 충돌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교회를 떠나 사회주의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제하고 봉사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근본은 아닙니다. 복음은 십자가 은혜로 죄인들이 구원 받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은혜가 모든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원천입니다.

3. 천사와 같은 사람
 사람들은 스테반에게 신성모독의 죄를 뒤집어씌워 반성전, 반율법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스테반은 극형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는 스테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습니다. 사람이 감정적으로 가장 견디기 힘든 시간이 모욕감을 느낄 때와 죽음의 공포를 느낄 때입니다. 자기를 다스리기가 어려워지고 분노가 폭발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스테반은 천사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8절)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기 때문(10절)’입니다. 사탄은 의도적으로 우리를 자극시킵니다. 모욕하고 분노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불안과 공포에 잠기게 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자기를 다스리는 능력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그 은혜에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음이 휘방을 당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을 신호로 격렬한 박해가 예루살렘에 시작되었고 사도 외에는 모두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흩어진 그들이 세상에 보내진 복음의 씨앗들이 되었고 옮겨 심은 종묘들이 되었습니다. 이 일의 결과를 행 9:31에는 ‘그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 지니라’고 했습니다.

이번 주 손달익 목사 설교 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sider	Prayer
I 오전 9시	장석남 목사	차영도 장로
II 오전 11시	안용곤 목사	유충기 장로
III 오후 2시	전재홍 목사	전재홍 목사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시 118:25,28...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9(1절)...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14(시 24)...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1 다 함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83...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행 6:8-15...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봉헌 Offering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634...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설 교 Sermon“한 전도자의 승리”... 손달익 목사
 * 찬 송 Hymn359(401)...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찬 양 예 배

오후 4시 30분 · 인도: 안용곤 목사, 설교: 손달익 목사

목 도 다 함 께
 성 시 시 135:5 인 도 자
 찬 송 270(214) 다 함 께
 기 도 오천수 집사
 찬 송 303(403) 다 함 께
 성 경 왕상 4:20-34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소문난 사람 솔로몬” ... 설 교 자
 * 찬 송 502(259) 다 함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인도: 전재홍 목사
 II부 오후 7시 ·설교: 손달익 목사
 기 도 ...I부: 전인숙 권사 II부: 정희자 권사
 성 경 왕상 5:1-18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위대한 꿈을 바라보다” ... 설 교 자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김양연·박수강·김복희2
 설 교 손달익, 장석남 목사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4시 3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교 회 소 식

☛ 모 임

1. 바자 준비 모임 / 11일(주일) 오후 12시30분 802호
2. 사라전도회 월례회 모임 / 11일(주일) 3부 예배 후 602호
3. 남선교회 9월 월례회 연합 모임 / 17일(토) 오후 3시 101호

☛ 알 림

1. 101호 예배
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청년부 예배 : 오후 2시
2. 102호 예배
소망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10분-11시
3.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4. 501호 예배
중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5. 601호 예배 / 부서 모임
초등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6. 602호 부서 모임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10분 · 오후 12시10분
7. 603호 부서 모임
사랑부 : 주일 오전 10시30분-11시30분 / 청년1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8. 609호 부서 모임
세례교육부 : 주일 오후 12시1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9. 701호 예배
유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10. 702호 예배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11. 706호 예배
유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새가족소개

성 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성 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조재환	3-3	안드레	본인	조건우3	3-3	초등부	본인
장미순	3-3	도르가	본인	조유빈1	3-3	유년부	본인

12. 세례식 신청 - 금년도 네번째 세례식인 10월 세례(세례, 입교, 개종, 유아세례)식이 10월 16일(주일) 찬양예배 시 있습니다.
 - 세례 청원서 작성 및 신청 마감: 9월 17일(토)
 - 세례교육: 4주교육(9/18, 9/25, 10/2, 10/9일) 낮 12시 30분 609호
 - 세례문답: 10월 9일(주일) 오후 1시 30분 609호
 *입교와 유아세례 신청: 10월 2일(주일)
 *입교와 유아세례 교육: 10월 9일(주일) 낮 12시 30분 609호
 *신청접수처 : 교육부서 및 교회 사무국
 *기타 궁금한 사항은(세례교육부 010-7743-3223)로 문의바람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포함)

주일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수요일예배	새벽기도
1,491명	432명	1,923명	351명	2,103명

무덤 너머

높고 푸른 새 하늘의 정기가 온 우주에 가득 찬 추석은 우리 민족에게는 일 년 중 가장 즐거운 명절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즐거운 추석을 맞아 무덤을 찾아 산으로 간다. 그것은 실로 이상한 인생의 수수께끼가 아닐 수 없다.
 인생이란 흙으로부터 왔으니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리라고 성경은 가르친다. 죽음 즉 하나님의 부르심은 누구도 거부하거나 연기를 하지 못하는 것이기에 인류의 역사와 경험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인간이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만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하나님의 영원에 대한 약속은 영원무궁토록 있을지이다.

-이중윤 원로목사 신앙칼럼 '순례자'에서-

청 결 유 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힘씁시다.

에너지 절 약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끄시다.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옵시다.

주 일 성 수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가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봉 헌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서지원	장희원	윤주일	가브리엘		
II부	할렐루야	최유현	차주연	김양연	윤주일	그레이스앤드벨	송재월	
III부	임마누엘	유태왕	전지희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박래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행 6:15)		
수요I부	호산나	최유현	김윤지	홍혜란	금주의			
수요II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성구			